

OPEC의 증산과 油價약세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으로 국제원유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긴급가격감시위원회에서 합의된 원유가격안정을 위한 긴급감산목표는 주요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대로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를 무시한채 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은 산유쿼터협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OPEC산유량은 2천3백만B/D를 상회하고 있어 지난 5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결정된 1백44만5천B/D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의 산유량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5백30만B/D로 전월대비 40만B/D 감소한 반면, 이란, 이라크는 3백10만B/D정도, 쿠웨이트 70만B/D, 아랍에미리트 2백만B/D등의 총산유량은 OPEC의 목표인 2천2백만B/D보다 1백만B/D를 상회하고 있다.

OPEC의장대행인 부세나 알제리석유장관은 「실무적인 면에서 감산약속이 곧바로 1개월후의 결과로 반영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회원국간에 감산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관계자들은 OPEC의 협조체제가 불완전하다는데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오타이바석유장관이 최근 출판물에서 「1991년의 생산협정폐지론」을 전개하고, 현재 구미석유자본과의 협조개발체제를 앞으로는 국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시사함으로써 OPEC에 대한 석유시장의 불신감을 더욱 높여주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 페르시아만안 주요산유국들은 오래전부터 가격유지보다도 생산량확대로 석유수입증대를 꾀해온 생산량과국가들이다.

결국 오타이바의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종래 산유량을 억제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의 석유수입을 증대해야 한다는 가격파의 입장에 섰던 이란, 이라크가 지난 5월에는 경쟁적으로 15만~20만B/D 증산한 것은 OPEC의 기본흐름이 증산기조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MEES의 추계에 의하면 지난 5월 이란의 산유량은 더욱 늘어난 53만B/D를 증산함으로써 월간으로는 지난 1973년 이후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그동안 비교적 협정준수에 성실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7월 선적의 對日 D-D원유수출가격을 인하시키기는 한편 구미지역에 대한 수출가격도 인하할 방침이다.

OPEC가 가격유지보다도 증산에 의한 시장확보를 최우선으로 전환하게 된것은 단기적인 자금획득과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석유수출수입을 국가재정의 주요수입원으로 하는 OPEC산유국으로서 세계적인 저축부족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개발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것을 우려하고 있다. OPEC산유국들은 소련·東歐등의 새로운 자금수요와 경쟁하는 한편 우선 당장의 자금확보가 현실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소비국의 재고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OPEC총회가 열리는 오는 7월까지 원유가격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金乾洽>

원유현물價格 推移

